

I. 바른 시민생활활동 개발배경

1. 목적 및 필요성

요즘 영상화자 매체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인지되거나 길거리에서 흔히 부딪치는 ‘신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는 그들 나름의 개인주의적 솔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대다수인 신세대는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본위적이고, 더불어 지내기보다는 독자적이고, 또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것보다는 차별적이고 특이한 것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오늘날, 이런 청소년들은 그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유분방함 때문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나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우리들 의식에 기반을 둔 횡적 결합관계에 있는 ‘시민’, ‘공민’, ‘국민’ 등으로 지칭되는 사회인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위유형을 습득하지 못하면 개인의 행위는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신뢰를 전제로 한 민주 시민사회는 유지하기 힘들어 진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신과 자유가 무한하고 개인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한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라는 종합적인 인식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것은 ‘身土不二’라는 유행어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인식과 행위(身)는 시대적이고 사회적(土)이어야 하는 것(不二)이다.

따라서, 현대 청소년의 행위를 관찰,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조건을 갖춘 시민이 가장 바람직한가? 간단히 답하자면 민주 시민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적인 시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버튼(1989 : 136)은 시민성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시민성의 강조는 공립학교가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시민적 가치와 시민적 지식, 그리고 시민적 참여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세력이 되어 한다는 특별한 의무와 정당성을 지녔음을 강조하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약속된 자유, 평등, 정의, 그리고 대중적 합의 등을 강화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와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민성을 전제로 한 바른 시민생활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시민이라는 개념과 그 바탕에 깔려있는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서양적인 것이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서구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역사적 개념이다. 민주주의란 정치의 한 양식만이 아니라 주로 사회생활의 한 양식이며 공동경험의 한 양식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시민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본 개발진은 네 가지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처음 두 가지는 청소년들 자신이 개선하여야 할 내적인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외적인 시민성 교육환경 문제이다. 첫째, 청소년들의 실천성 문제이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적이고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가치나 선악의 구별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도덕수업같이 여기고 실생활에서의 행위는 전혀 새로운 청소년들의 고유의 가치 또는 몰가치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런 부조화 현상은 시민생활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영향을 받았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실천적 행위로써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보다도 추상적인 이념과 원리를 선언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천적 행위의 생활화를 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개개인의 생활과 어떻게 연관되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들은 사민주의적 생활양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를 엄격히 구별할 줄 아는 공공정신을 내면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로써, 한국인들은 일반가치 지향보다는 타인 지향적이며 상황가치 지향적인 맹점을 갖고 있다. 셋째, 시민생활 교육이 정부 주도하에 일률적이고 주로 정책 우호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물론 획일성은 민주시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과 멀고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강제나 교리화 보다는 인간교육을 통하여, 확실한 신념에서 우러나는 소신에서 체제의 가치에 동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교육 기관에서 제시된 목표적 행위가 민주시민의 소극적인 가치와 태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바른 시민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와 태도는 크게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범주화될 수 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의무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에 걸쳐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별성과 전체성, 다양성과 통일성,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질서, 권리와 의무, 자기주장과 상대방 인정, 선택과 자기 책임, 비판과 타협, 참여와 준법 등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게 되면, 민주주의 개념은 벗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후자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였다. 한국의 경우는 정치참여를 교육의 목표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해방 후 지금까지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이 민주정치의 원리이며, 국민의 자발적 동의가 정치적 정통성의 기준이라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혁 과정에서 이보다는 지도자의 역할, 민족의 화합을 더 중시하기도 하였고, 선거만이 국민의 정치참여 방식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집회와 결사, 또는 사회운동 등은 사회혼란의 주범처럼 취급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다. 공식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 및 행위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켜 주어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파악하여 자율에 바탕을 두고 적극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괴리현상을 자각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첫째 목표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지된 것을 생활과 연결시키는 고리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적극적인 시민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극적으로 사회공동체

를 유지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결사체의 참여나 주인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련거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2. 방법 및 절차

바른 시민생활활동 개발을 위한 일정중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한 대표적인 절차는 활동개발 계획안 발표회, 두번에 걸친 자문의회, 그리고 중간보고서 발표회이다.

첫째, 활동의 기본 구성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4년 4월부터 6월 25일까지 자료수집과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진의 계획안 발표가 1994년 6월 28일 개발원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 발표회를 통하여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보완이 되었다. 수정이 가해진 계획안을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의 자료로 활용을 하였다.

둘째, 자문위원은 두 가지 범주로 위촉이 되었다. 하나는 활동의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의 위원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내용구성을 위한 개별자문위원이다. 자문회의는 활동계획안의 전반에 걸친 자문을 위한 것으로 연구진이 개발하려는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문위원은 학술적인 전문가보다는 청소년활동의 수련거리 개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현장에서 청소년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위촉하였다. 자문회의는 김갑제(복지문화신문사 편집부장), 김왕근(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이승정(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실장), 장미아(가좌여중 도덕과 교사) 및 최병모(교육부 연구사)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1994년 7월 5일(화) 9:30에 한국청소년개발원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자문회의와는 별도로 개발내용구성을 위한 전문가의 개별자문이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학자 세사람을 개별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았다.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의뢰하였고, 각 자문위원이 대담 형식이 아니라 글로 정리한 자문내용을 개발진이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위한 시간은 1994년 9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주가 설정되었다. 위원명단은 장은미(연세대학교 강사,

경영학박사), 이승중(한양대학교 강사, 철학박사)과 김병로(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사회학박사)이다.

셋째, 중간보고서 발표회는 1994년 9월29일 개발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발표회는 원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토론회였다. 바른 시민생활활동의 개발취지와 목표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 졌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구성의 정교화와 구체화에 대한 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수정과 보완작업이 실시되었다.

II. 바른 시민생활활동 내용탐색

1.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일시 : 1994년 7월 5일 (화) 9:30-12:30

장소 : 한국청소년개발원 회의실

1) 자문위원의 구성과 자문회의의 의의

자문위원은 학술적인 전문가보다는 청소년 지도자, 일선학교 교·강사, 언론인 등 현장경험자 중심으로 위촉하여, 자문회의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토론회를 지양하고 수련거리의 내용이 얼마나 수련현실에 맞게 방향이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자문을 받는데 의의를 두었다.

자문회의는 개별자문과 더불어 연구진의 가치관정립활동 수련거리 개발의 방향을 점검하고 공개적인 타당화과정을 거치면서 수련거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둘 수 있다.

자 문 위 원 명 단
김갑제(복지문화신문사 편집부장)
김왕근(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이승정(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실장)
장미아(가좌여중 도덕과 교사)
최병모(교육부 사회과학편수실 교육연구사)

2) 자문회의의 기대효과

- ▷ 청소년의 수련거리는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현장성이 강조됨.
따라서, 개발진의 세부계획서가 얼마만큼 현장 또는 실천중심적으로 구성되는지를 자문받음(현실성).

- ▷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노력과는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수련거리의 내용과 주제의 괴리현상 내지 편협함을 방지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함(타당성).
- ▷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이 과연 수련거리의 고유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자문(신뢰성).
- ▷ 수련거리의 내용이 현장에서 얼마나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고 응용이 가능한가를 자문(편리성).
- ▷ 개발될 수련거리가 현장에서 산 경험을 한 전문가의 욕구를 반영한 것인가를 확인함(현장성).

3) 자문회의의 토의내용

- ▷ 현재 청소년에게 시민생활 활동이 절실한가?
- ▷ 바른 시민생활은 사회적인 산물인가?
- ▷ 바른 시민생활 정립을 위한 교육과 실천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 ▷ 지금까지의 시민생활 정립을 위한 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 바른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 중에서 어느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 ▷ 실천가능한 미풍양속이나 덕목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시민생활을 어떻게 실천하는 시민생활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4) 자문회의의 진행

이 완 수 어제 뉴스에서 방송되었듯이 우리 나라 인구 4명당 1명이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를 어기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보내드린 자문회의 자료를 보셨겠지만 바른시민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문민정부

이전의 사회보다도 민주시민이라던가 바른 시민생활이 되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타율적이고, 일관적인 민주시민생활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정신에 위배되고 오히려 반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요즘 신세대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과연 바른 시민정신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활동으로 옮길까를 잡고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연 제일 궁금한 것이 요즘 청소년들이 바른 시민생활을 하는 것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교육여건보다도 활동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 보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크게 3개의 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문보다 두번째 세번째는 활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바른 시민 생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소극적 생활이라고 하였는데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소시민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세번째, 적극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공동체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주인의식이라고 하면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머물 수 있는데 그것에서 발전시켜 남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 자유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행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포괄적으로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소극적 적극적 시민생활을 위해서 아무래도 민주라든가 자유라든지 그것도 민주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첫째 부문에 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선생님들이 정리하셨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내용은 간략히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최 병 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처음 참석하고,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이쪽 분야에 아는 것은 없지만 관심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연수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회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중에서도 역사, 지리 과목을 제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관련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정치부분을 김왕근 선생님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는 저희가 하는 일과 밀접히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생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그 교과서가 평소에 느꼈듯이 지금까지 사회과 교과서는 원리나 이론 중심으로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번 교과서는 특히 정치 법관련 교과서는 활동중심으로, 민주시민 훈련시키는 쪽으로 교과서 방향을 대폭 개선해야겠다고 판단되어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안이 그대로 교과서가 되어도 크게 손색이 없지 않나 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이 방향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본인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청소년 관련되어서 각급 정부나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바른 시민생활하고 관련해서 기존의 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접근을 한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이 연구의 대상이 청소년인데, 사실 기성세대하고 신세대는 사고방식이 달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은데,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기초연구가 이루어진 다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추출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같은 대학생들도 1, 2, 3, 4학년들 간에 생각이 차이가 나는 시점에서, 기성 성인들이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그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조사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바른 시민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있고, 소극적 시민활동, 적극적 시민활동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른 시민생활에서 하위영역들이 좋지만 조금 더 추가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포함시켰으면 하고, 즉 글로벌(global)한 시각, 그런 측면에서의 개인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개념, 공동체의식, 민주 시민생활 등을 유도했는데 이것은 앞의 연구목적에서도 나왔지만, 기준을 우리 나라의 헌법의 이념, 정신에서 가져오면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냥 우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시민생활이 무엇이고, 바람직한 민주생활이란 무엇이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이 사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나라의 모법인 헌법의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 나라의 모법인 헌법과 연결시키면 구체성을 띠지 않겠느냐 등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있는 이론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민생활 활동 1과 2에서 프로그램 예도 제시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엇인가를 설정해 놓고 그것으로 끌고 나가는 접근보다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시민활동을 함으로 해서, 즉 바른 시민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이익이 오고,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식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소크라테스의 죽음, 준비하고 관련해서 교과서처럼 나오는 것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보다는 질서라든가 약속이라든가 법을 잘 안 지키므로 해서 사회 전체에 누를 끼칠 뿐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손해가 온다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례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체의식을 가져라 가져라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사회 전체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의사결정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자신이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습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대간의 갈등조화도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대간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 여기에 서양식 사고, 동양식 사고의 차이를 통한 소집단 토론활동은 참 좋습니다. 세대간의 갈등조화 문제, 가정·학교와 사회의 조화문제 등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측면에서, 이쪽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6차 교육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되고 실제로 참여하고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여기서 안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한 후에 그것을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평가를 해 보는 단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고,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잘 된 것인가를 알아야 피드백이 되어, 다음의 행동을 연결시키는 부분을 넣었으면 합니다. 여기서도 선거참여라든가 자치활동참여에 있어서도 참여를 안해 가지고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여기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봉사활동이 어떤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프로그램이 관련이 되네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장이 무엇이나 하는 것도 정보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가능하면 농촌이나 도시나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그것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적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왕 근 저는 최병모 선생님 보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외부입장에서 내용의 구체적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틀리거나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구

체적으로 어느 내용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목적이 나오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내용이 나올 때, 그 이전에 연구자들이 본 연구에 대한 문제 의식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구목적이 나오고 연구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 글은 일종의 프로포잘(proposal)인데 연구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 찾으려 하였습니다. 드러내놓고 문제의식을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의식이 들어 있나 보았더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지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잘 알도록 가르치면 행동으로 따라 나온다고 교육이 가정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여기저기서 많이 제안이 되고 있듯이 무엇을 가르치던 간에 그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그 참여의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쪽 뒤를 따라보니까 그런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방향이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시민’ 하면 시민의 2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시민성이 어떤 것이냐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은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이고 기본권이 어떤 것인가가 주로 논의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덕목으로는 다양성, 사생활의 자유, 평등, 정의와 관련되어 시민성이 논의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측면으로 그대로 있고 또 하나는 일상과 시민의 관계인데, 직장, 사회, 학교 생활에서, 거리에서와 같이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포잘에서는 두 가지 시민성 둘 다를 포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한 쪽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측면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명확히 규명해서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두것다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침서도 1부는 국가 차원에서 시민성을 논의하고, 2부는 일상생활에서 시민성을 논의하겠다는 하는 식으로 연구자들이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문제의식으로써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천은 실천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주지주의 입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백날 가르쳐 봐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육현실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의도한 교육은 반드시 청소년이 실천지향 교육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경험을 통해서 실천하는 시민의식이 내면화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알게 하는 교육이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알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게 되면 실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어떤 덕목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덕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기보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안되고를 청소년 스스로 고민해서 따져가면서 알게 된다면 실천으로 나타내느냐 아니냐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연구자들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민생활이 사회적 산물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게 순환고리에 얽혀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아무리 잘 교육시켜도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시민교육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한 사회는 결코 좋아질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기 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나빠지니 교육을 잘 시켜도 사회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회가 비민주적일수록, 비정의적인 사회일수록 정의교육을 학교교육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생활이 사회적 산물인가 라는 물음은 물론 철학적으로 답변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회가 비민주적일수록 우리는 더 민주주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관점을 하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많이 고쳐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 갑 재 제가 이번 바른 시민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일단은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생활도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똑 같은 입장으로 청소년들에게 주제를 주어서 토론을 하게 하면 청소년들 나름대로의 청소년들의 아픔과.....

이번에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바르다는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른 것이냐, 청소년들의 삶을 위한 타당성을 향한 바른 시민생활 태도, 청소년과 모든 국민들의 참여 속에 시민생활이라 하는 것과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행정이나 문화나 여가생활에 따른, 지금 예를 들어 현재 여러 가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준거집단 활동을 할 때 여건 상으로는 단체활동이 규제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 끝나는 시간이라든지 보충수업 관계로 다른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단체가 프로그램을 하지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를 빠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스스로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와 교류해서 일관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도록 하고, 여건이 안되면 공휴일이라든지 국경일을 활용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청소년들도 느끼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입시위주 관계로 지금 저희 동네 청소년들과 서초구민회관에서 매주 금요일 날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곳에 데리고 가 보니까 저녁 시간대에 고등학교 일학년, 이학년 아이들을 보면 그 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바른 시민 생활도 연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놀이마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한 놀이마당이 되기에는 좋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곳에서 어느 단계만 거치면 쟁과리도 빌려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진로지도를 해준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교육이 대입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바른 시민생활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동참하고 어떤 꼭 몸으로 부딪치지 않더라도 편지로라도, 방송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여건으로서는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론이라든지 관련매체를 통해서든지 앞으로 유선 종합방송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작년 12월인가 청소년 바른 생활 다짐대회 행진을 했는데 그곳에서 느낀 것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탑골공원까지 가는 것이 바른 시민생활 다짐하는 대행진이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디스코를 한 번 추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시민 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든 어디든 청소년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먼저 인사를 했더니 참 좋았던 것이 그 청소년들이 저희 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고리가 돼요. 그것을 통해서 서울이라는 곳에서도 어렵지만 서로를 믿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든 덕수궁이든지 같이 가서 어울려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부모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서 어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생각하는 것이 학원보내야지 뭘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을 모두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주장했더니 지금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학원도 중요하지만 박물관을 구경하고 과학관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생활이 바로 정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승 정 저는 79년 부터 YMCA에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 청소년 관련 상담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상을 특별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80년도 초반에 정

부가 주도한 청소년 관련단체가 생기면서 자발적인 민간단체의 활동이 많이 축소되고 제한되었습니다. YMCA와 기타 민간단체의 조직활동 자체가 따로 떼어서 시민활동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조직활동 그 자체가 하나의 시민의식을 강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바론 시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무엇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그 활동 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의식의 가장 중심에 기초하는 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그러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매체를 중심으로 한 매체를 통한 활동이 있을 듯 한데 그것에 관한 점점을 하지 않고, 제도만을 갖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인식을 통한 활동 자체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활동의 축으로 하는 것은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비디오를 활용한 것은 실제로 85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요즘의 컴퓨터를 포함해서 매체 선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관점을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을 하나의 주체적인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청소년 문화가 자체로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청소년들을 하나의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언젠가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독자성, 인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지도의 내용까지도 달라졌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발적인 기회가 열렸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적인 대상, 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는 얼마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고,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지침서가 얼마큼 귀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지침서 중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중에서 말씀드리면, 비디오 매체를 하나의 교재(text)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매체에 아이들이 친숙해 있고,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는 매체 중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영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쓴 분들에 관한 비디오 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관한 좋은 비디오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아이들이 토론의 과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선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토론하고 하는 것이 좋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비디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은 사실은 청소년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개방화 이후로 가속화되었는데, 실제 그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혼란들 이런 것들은 모든 사회가 갖고 있는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정보들 속에서 그것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취할 것만 취할 수 있는 자기선별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정보는 굉장히 확대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봉사활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봉사라는 개념을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이나 하는 것이죠. 시민사회라는 것은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자신들의 봉사도 자구적인 활동이지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협한 의미로 장애인을 돕는다든지하는 것을 통해서 자발적인 회원 활동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YMCA는 청소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면접을 보아 가지고 대학생 지도자들을 선발했는데 요즘은 자원 지도자 대학생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청소년들 스스로

가 영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개인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5명이 한 조가 되고, 각 집단에 지도자들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연극영화과 학생들도 있었고 관련학과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한 학생이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하루 활동을 하면 비용을 어느 정도 주느냐고 그러더라구요. 저희 YMCA는 돈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로 활동을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이 활동을 하는 의의와 협력해서 공동의 선을 느끼는 활동에 본인이 동의해서 참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자신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물질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채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한번 더 본인이 목적지향적인 활동에 스스로 참여해 본 경험,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었는가 하는 경험들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사가 끝나고 집단별로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감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아르바이트로 그 일을 했다면, 이러한 만족감은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활동에 대한 의의를 아이들에게 영상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데 자신이 참여해서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장면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회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회인이 되어서 직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여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 자신이 사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을 그 사회 동질성을 확대하는데 공헌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체험들을 갖지 않는 한은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끝날 우려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강조되고자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지침서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미 아

먼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이면서도 워낙 사회가 권위주의적인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들은 상당히 많지만, 실제적인 행동에서는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타율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서 이 사회가 가장 원하는 것이 철저하게 입시위주의 공부만 잘하면 된다면, 물질주의 풍조,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조장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우리사회를 같이 고민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반에서 부반장을 맡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청소를 한 번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번 불러서 상담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뻔히 보고, 매점에 가서 무엇을 사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남을 돕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도움도 피해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남을 돕지도 않고 피해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가 하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참여의식·협동의식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 아이로 하여금 이런 의식을 가지게 한 것은 사회의 책임이 아닌가 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나라가 권위주의적인 정치적인 역사발전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책임을 져야 할 곳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

는데요, 학교 안에서 이런 민주적인 품성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주지 못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항상 통제의 대상이지, 아이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전혀 조성하지 못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좋지 못한 행동을 보였을 경우,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건장한 비판을 제시하면 선생님은 이것을 권위로써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는 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민주주의를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이 민주주의의 절차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학생회 활동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학생회가 직선제가 되기는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형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직선제로 뽑기는 했지만, 직선제로 뽑힌 학생들이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이 주어져서 그것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학생들의 요구들을 수렴해서, 행동으로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싹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이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 행동하는 민주주의가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중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학교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니 만큼 민주주의에 대해 몸으로 배우고, 민주주의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의 전체적인 풍토가 변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이 의식과 행동이 일치되는 다양한 민주생활을 익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 왕 근

연구내용을 보면 어떤 시민성이 모자란다, 결여되어 있다, 그것을 길러주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표준으로서의 시민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민성이든지 관계없이 그 시민성을 잘 발휘하도록 방법에 강조점을 두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존중, 개성존중, 책임과 의무, 개방성, 자율성, 준법성 등등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인지,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 특정한 시민성보다는 그것이 잘 발휘되도록 그 방법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인지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실이 특정한 시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특별히 이러한 의식을 길러주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까 어느 분이 공동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타인에 대한 고려가 있는데, 그것을 외국인들은 '케어(care)'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비판적인 사고 쪽에서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는 것과 같은 시민성들은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민성들은 반드시 다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참여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참여는 3가지 활동으로 대변이 되는데, 하나는 지역사회 연구입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연구하

는 것입니다. 상가가 얼마나 있고, 도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불량 만화가
 계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연구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싹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겨냥한 접근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드러나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횡단보
 도가 없다는지, 신호가 짧다는지, 신호체계가 엉망이라든지, 가판대가 지저분
 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고안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 지역사회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봉사활동이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
 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첫번째와 두번째가 잘 수행
 이 되면 세번째는 따라서 잘 수행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 감 재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주인의식을 갖자는 이야기는 많지만 주인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내가 주인되었을 때에 주
 변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
 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필연성과 같은 것을 강조하면서, 그 분야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입시위주, 학력위주로 사고를 하
 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 공부 잘하고, 제 주변에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
 면, 채수를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나와서 막상 갈 데는 없고, 솔직히 실
 력은 안되고, 집에서는 대학을 가라고 그러고, 본인은 공무원이나 됐으면 하
 고, 그래서 여기서 4년만 지내면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집에서는 돈은 얼마
 든지 들여도 좋으니까 학원을 다섯군데를 보내려고 해서 가출을 한 소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 잘못됐었던 학생들이데, 그런 아이들을 보
 면서 그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공부만 가르
 치고, 학원만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서 그 청소년을 직업

훈련원에 보냈는데, 무척 보람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우리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긍지를 가졌을 때, 그런 청소년들을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말씀들을 하실 때 학생들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나라에는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승 정 청소년들의 집단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 자신이 민주적인 의식을 갖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민주적인 교육을 받아 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적용가능한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자료들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파일럿(pilot)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알고 싶은데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는 실제로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기를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여건에 대한 조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개발내용 구성을 위한 개별자문

자문회의와 더불어 개별자문은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의 객관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개별자문과 자문회의의 가장 큰 차이는 개별자문이 보다 더 구체적인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연구자나 학자 중심의 학술적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두번째 차이이다. 따라서, 지도자용 지침서 개발의 내용에 따라서 세명의 자문위원이 선정되었다. 각 자문위원은 포괄적인 내용을 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각 세부내용에 한정하여 자문을 하였고 각자 글로써 정리하여 주었다.

기간 : 1994년 9월 24일 부터 10월 29일

1) 인식*

가. 들어가는 말

청소년의 바른 시민생활활동의 필요성은 비단 요즘의 신세대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우리 나라에서 어떤 세대가 민주주의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소위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치체제가 출범한지 반세기가 되어가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개념적 지식에서 나아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이제야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이 반갑고도 서글픈 일이다.

60-70년대가 이루어낸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통사회는 해체되어왔고 80년대의 경제팽창과 정치적 변화는 이제 새로운 시민사회를 성숙시킬 조건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성숙한 시민사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다. 연구목적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민주주의를 개념적 지식으로만 가르쳤고 그나마 우리의 정치현실과 사회적 관행들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회의를 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계획이 활동중심의 바른 시민 생활교육이라는 점, 시민생활의 소극적 측면과 함께 이제까지 도외시되어 왔던 적극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활동이 기왕의 학교교육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일단 시험적인 차원에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형태로 시작되더라도 이것은 결국 학교교육내용에서 포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국에 많은 추종자를 두고 있는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J. Dewey)의 교육철학도 결국은 민주시민생활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민주주의를 어떤 고정된 체제적 형식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과정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듀이는 사회운영의 원리를 교육의 원리와 동일시하였던 것이다. 즉 교육은 모든 성인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삶

*장은미(연세대학교 강사)

을 이끌어 가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의 근간을 이루어야할 정신이 학교교육 현장을 떠난 어떤 프로그램만으로 얻어질 수 없다고 본다.

읽어본 계획안은 문제제기와 함께 커다란 방향과 개요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아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각 주제에 대하여 목적과 내용, 방법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기서는 연구내용, 즉 바른 시민생활을 위한 교육주제와 활동계획에 생각을 조금 보태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나. 바른 시민생활이란

민주주의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생활과 관련하여 생생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까지는 학교교육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형식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어왔다. 즉, 권력의 분립, 법치주의, 민주주의적 기본권, 선거와 투표의 원칙 등은 민주주의 개념의 외연에 해당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개념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자유, 평등, 공존, 책임 등)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습득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념을 이해하되 실천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외연보다는 내포를 배워야 할 것이다.

가) 내용

(가)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관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전처럼 단순히 민주사회와 전제사회를 체제비교를 하거나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들을 아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 이 보편적 원리는 시민성, 바른 시민가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공존, 책임 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고 상호관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상황적,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정의는 무엇이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평등과 자유의 원칙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며, 그에 따르는 책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가 등등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발달심리학자인 삐아제(Piaget)와 콜버그(Kohlberg)는 도덕성 발달과 정치사회화를 발달적 관점에서 보았다. 콜버그는 도덕적 사고수준이 높을 수록 도덕성의 수준이 높다는 인지론적 가설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했다. 예를 들면 아동에게 딜렘마를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게 하여 도덕발달수준을 확인하였다. 바로 이 도덕발달의 수준은 정의(Justice)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유명한 한스(Hans)의 딜렘마는 다음과 같다.

“어떤 약제사가 상당한 노력 끝에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였는데 그는 이 약에 상당히 비싼 값을 붙여놓았다. 한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므로 이 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나 돈이 모자랐고 약제사는 나중에 지불하도록 해달라는 한스의 부탁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한스는 아무래도 이 약을 훔치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같은 딜렘마는 크건 작건 우리 삶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같은 딜렘마에 정답을 마련하는 것보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민주주의적 원리의 제 측면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는 인지발달론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훈련이 정치사회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의 과정은 이러한 사고 수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개인의 일관된 사고와 의식이 정치행동을 결정한다는 인지론적 입장에 대립되는 것이 사회학습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강화, 모델링 등에 의해 정치사회화된다는 입장이며 우리는 양자를 절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술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동은 특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황적 영향을 받으며, 사회학습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개인에 따른 일관성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충적 견해는 행동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와 발달수준에 맞게 과정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 연구결과이지만 발달과정에서 12-15세 소년들이 정치적 태도변화가 크고 15-18세 에서는 완만하며 청년기에는 대체로 반향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도 참고 할 만하다고 본다.

요컨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사고해보는 것이고 그것을 참여자의 발달수준에 맞게 구성하는 일이 과제가 될 것이다.

(나) 절차적 민주주의의 체험과 습득

바른 시민생활,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체험과 그것에 대한 신뢰가 꼭 필요하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다수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그 속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야말로 경험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소위 ‘산교육’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부분,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사회주의 체제가 결과적으로 체제경쟁에서 패배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과소평가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다양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폭력이 아닌 대화, 입장이 다른 쌍방에 동등하게 부여되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논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과정, 다수에 의한 결정과 소수의 승복, 다수의 횡포에 대한 견제, 등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까지도 모범적인 토론문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전에는 소리치지 않고도 증거와 논리적 반박으로 국회청문회의 증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한 국회의원이 스타가 되기도 했다. 이제 힘과 권위에 승복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해결과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

절차적 민주주의의는 결국 다양성의 공존, 수평적 인간관계, 합리성에 대

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토론의 기술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며 일종의 ‘태도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태도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수준의 인식(개념적 이해와 사고능력)을 전제로 하고 거기 필요한 기술(토론기술, 논증하는 기술)과 행동적 측면들(사회학습이론에서 말하는 모델링, 사회적 강화, 반복에 의한 행동의 변화)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활동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시행해보도록 하고 적절한 시범과 칭찬, 또는 집단에서의 평가 등이 태도학습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피력하는 적절한 준비와 연습을 지도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 귀기울이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존을 위한 태도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나) 방법

(가)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의 이해

딜렘마 상황을 설정하여 역할을 나누어 맡고 모의토론을 해본다.

예1: 일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합창대회 자유곡으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선정하여 연습하다가 교장선생님에게 걸려서 한 반이 모두 벌을 서고 자유곡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예2: 세무공무원이 세무비리를 고발하여 면직되고 다시 복직된 사건.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우선할 것인가 조직과 상사에 대한 의리와 규율에 순종할 것인가?

예3: 지하철 파업으로 전철운행이 중단되면 대개의 마스크이나 시민여론은 파업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편이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리를 적용시켜 다시 보면 어떠한가?

(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습득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관심에 부합되는 주제와 상황을 설정하여 직접 해결하던지, 모의토론, 상황극을 하게 해본다. 안전이 있는 전체회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예1: 청소를 어떻게 분담하며 학급임원의 경우 얼마큼 면제받아야 하는가?

예2: 부모님과 청소년의 갈등상황,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음악공

연을 꼭 보러가고 싶다.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진로에 대해 이견이 있다.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예3:한 집단이 전부 어떤 활동, 예를 들어 캠프 같은 것을 하기로 했는데 몇 사람이 경비를 댈 형편이 안되어 불참하려고 한다. 다 같이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나머지가 경비를 골고루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만 몇몇은 반대할 수도 있고 또 풍족한 몇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예4:교실의 자리배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해본다.

예5:어떤 빈 공간을 학생자치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 의견수렴과 초정과정. 휴게실을 할 것인가, 공연장을 할 것인가, 특정한 동아리방을 만들 것인가?

예6:특히 이 부분의 활동프로그램은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 집단의 실생활에서 직접 실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집단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집단이 부딪히는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훈련되어야 한다. 스스로 내부 규율을 세우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민주주의 발전단계에 대한 연대표 만들기 등은 구체적인 학습내용이 보충된다면 좋을 것이다. 이를 떼면 신분이나 재산에 의한 선거권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차티스트 운동이 무엇을 했는지, 프랑스 혁명은 무엇을 바꾸었는지, 기존제도의 결함과 새로이 쟁취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 치러졌으며 그러한 희생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가(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를 이해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흔히 하듯이 연대표에서 연대와 사건, 중요인물과 항목을 외우는 데 만족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의 법정은 민주주의의 인식을 위한 것으로서는 약간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할과 지위를 주고 모의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행동을 택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닐까?

다. 시민활동의 소극적 측면

이 부분은 대체로 우리 도덕교육에서 그나마 주력해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작금의 청소년 범죄의 증가, 강력범죄 증가, 지존파사건, 근친살해 등의 패륜적 사건, 공무원 비리, 한탕주의가 낳은 대형안전사고 등등의 충격으로 우리사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이다. 무너진 가치관을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는 소리들이 드높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계획안에서 지적한 대로 배운 것도 지극히 단편적인 것이요, 그나마 행함과는 괴리가 컸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가끔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시민의식, 질서의식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비교되는 것은 우선 가정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학교교육이 빈 껍데기라는 것이다.

가정교육의 중요함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인생의 초기에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데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교육은 전통적 규범이 와해되면서 새로운 시민적 규범이 형성되지 않은 채, 지극히 사적(私的)이며, 영재교육 등의 조기교육과열 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쟁적(競爭的)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우려할 만한 일이다.

학교교육에서도 역시 입시위주의 경쟁적 원리가 지배한다는 데 별반 차이가 없다. 공동체 의식, 인간의 존엄성, 준법과 질서, 자율과 책임 등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에 불과할 뿐이다. 교원의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인 쟁점을 잠시 제쳐두고라도 애초 제기되었던 “참교육”을 다시 음미해볼적하다.

어쨌든 시민생활의 규범을 확립하는 일은 한두 번의 활동으로보다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할 것이며 핵심적인 목적은 인간이 ‘그 자체로 존엄하며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다.

가) 내용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삶’을 알고 행하는 것은 각종 사회악과 범죄에 대한 항체요 면역소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성이나 능력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성차별, 빈부격차, 장애인이나 거지, 노인에 대한 냉대, 인종차별), 인간이 수단이 될 수 없으며(나찌와 일제의 생체실험), 학문과 과학

기술의 발전도 결국은 인간의 복지를 위협이라는 것(히로시마 원폭, 공해방지기술, 의학과 심리학, 사회학,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선진국이 되려는 이유)을 알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를 인식하기(나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고마운 사람들, 내가 지켜야 할 질서와 공중도덕, 나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타인의 행위들, 후손과 나눠가져야 할 환경, 폭력과 외설 매체는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가, 약자에 대한 공공의 보호 등)는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 요소이다.

나) 방법

위 내용을 주제별로 적절한 상황극이나 토론을 활용하여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 일상생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실천적 지침까지 확인한다.

상황극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역할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순서를 넣는다(도덕발달에서 말하는 역할 수행 role-taking은 對者的 사고에 도움을 준다).

예1 : 수도물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집집마다 생수를 사먹거나 약수를 뜨러 다니는데 나는 또는 우리 집은 생활하수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 밖에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일회용 상품의 사용은?

예2 : 우리도 언젠가는 어린이였으며 장차 노인이 될 날도 있다. 혹은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약자에 대해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예3 : 자율과 책임이라는 주제 - 폭력, 외설만화나 비디오 어디까지 규제하는 것이 좋을까?

예4 : 돈이 없어도, 공부를 잘못해도, 외모가 보잘것없어도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찾아서 발표해보자. 친구한테서 찾아도 좋고 TV 드라마에서 찾아도 좋다. 왜 그것이 훌륭하게 보이는지 설명해보자.

책임의 실천은 자율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던 외국의 경우, 시민적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과 더불어 상당한 자율성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규범이야말로 어떤 강제나 처벌보다 효과적이라는 상식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교육활동과정에서도 규범을 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배려한다.

라. 시민활동의 적극적 측면

참여의식을 고양시키는 사회교육은 그 동안 전무했고 실생활에서는 소신보다는 눈치가, 참여보다는 방관이 장려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선 정치참여, 사회참여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사회생활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 내용

시민생활의 적극적 측면이야말로 내용과 방법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일 것이다. 도덕성에서 인지적 측면을 강조했던 콜버그조차도 결국 인지가 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도소에서 단순히 딜렘마를 토론하는 대신 저스트 커뮤니티(Just Community)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것을 고등학교에 확대하여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하버드 대학부근의 캠프릿지 공립고등학교, 1974년). 이 방식은 구성원이 정의로운 사회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근사하고 효과적인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나) 방법

(가) 정치적 참여

학생회 운영(선거, 유세, 민의수렴, 대의원 대회, 대의원회의 보고, 평가)이나 학교주변환경 정화를 위한 학생활동(자체 의견수렴, 필요하다면 행정기관과 시의회 방문, 건의서 전달 등)을 해 본다. 또는 시의회 활동견학,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모의토론, 그리고 사무직, 생산직 노동조합 견학과 토론을 해 봄으로써 참여를 익힐 수 있다.

(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을 방문하거나 가능한 봉사활동을 한 후, 보고와 토론회를 갖는다.

둘째,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등에 대한 청소에 참여하고 느낀 점을 토론, 대책을 세워보고 실천가능한 것을 실행에 옮긴다. 셋째, 위 활동의 결과중 여론에 호소하고 싶은 것이나 참여를 확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언론을 통하여 알리는 방법을 써본다(독자투고나 기사화). 넷째, 사회부조리에 대한 상황극(의사, 교사, 기자, 변호사 등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각종 압력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을 보고 토론하기와 마지막으로 각종시민운동단체에 대한 견학과 토론하기(경제정의실천연합, 참교육실천 학부모협의회, 환경운동연합...)이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원론적인 모형보다는 청소년들의 현재관심사, 시의적절한 쟁점들이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교육현장의 교사나 학생들 자신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학생, 취업청소년, 비행청소년 집단 등에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활동프로그램의 현장성을 강조하다보면 소위 실정법,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터인데 이 괴리를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현실화시켜야 할 문제라는 것을 실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점에 아직 상당한 어려움이 남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2) 이해*

가. 들어가는 말 : 무엇이 문제인가?

바른 시민생활은 원만하고 화목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하며 그것은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매우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다. 그런데 바른 시민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하라는 뜻이요 그것

*이승종(한양대학교 강사)

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로우나 자신을 위해서는 손해가 되는 삶의 태도라고 보는 청소년들을 흔히 보게 된다. 바른 시민생활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사고 방식은 ‘신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 나름의 개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바른 시민생활 활동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 방식을 논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른 시민생활 활동」의 연구에서는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에 강요하거나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을 민주적 토론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를 구체화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문제가 문제로서 제기되는 논지, 즉 신세대의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이 타당성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살펴보자.

나. 문제는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

바른 시민생활이 본인을 위해서는 손해를 보는 길이라는 의견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있어서 바른 시민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그릇된 시민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바른 시민생활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거짓말로 만든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러한 사회가 병든 사회라고 진단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왜 병든 사회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 어떤 병이 들었는지가 다시 밝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우리는 바른 시민생활로 말미암아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그리고 그 경우에 왜 손해가 초래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바른 시민생활의 존중이 본인에게는 손해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

회에 바른 시민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바른 시민생활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 성원이 그것을 준수할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른 시민생활을 실천으로써 존중할 경우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소수만이 그것을 실천할 경우에는, 바른 시민생활을 실천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피해자가 될 염려가 있다.

예를 하나 생각해보기로 하자. 추석을 맞아 귀향길 기차표를 구입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바른 시민생활의 실천일 것이다. 이 경우에 모두가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크게 볼 때 모든 사람을 위하는 슬기로운 행동이다. 그러나 차례를 무시하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반면에 고지식하게 순서를 지킨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키는 바른 시민생활이 슬기로운 삶의 지혜라는 주장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줄서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경우에 우리 모두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며, ‘나’ 자신도 그 피해자들 가운데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해 전에, 서울역에 운집했던 귀성객들이 차례를 무시하고 질서를 잃었던 까닭에 여러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은 불상사는 질서의 문란이 사회 전체에 치명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더욱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교통량이 많은 큰 도로에는 차선과 신호등이 있고 속도제한 기타의 교통규칙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 교통 규칙을 존중하지만 일부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를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교통 규칙을 존중할 경우에 그 규칙의 준수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일부의 위반자가 생길 경우에는 위반자는 이익을 보고 준수자는 손해를 본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선과 신호등을 무시하는 등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교통은 완전히 마비될 것이고, 결국 통행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교통 질서를 존중하는 도덕이 통행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바른 시민생활임이 명백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른 시민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계산법이 근시안적이라는 사실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만을 계산할 때 우리는 바른 시민생활을 존중하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만을 눈여겨볼 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불행한 생애의 주인공이 된 경우보다도 부도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말년을 비참하게 보낸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언제나 적중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바른 시민생활 활동』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주제 토론이나 드라마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청소년들이 이에 직접 참여하여 바른 시민생활을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바른 시민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의 두 번째 이유는, 시대상 또는 사회상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옛날의 전통적 바른 시민생활 개념이 오늘의 우리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바른 시민생활의 실천은 행복한 삶을 위한 행위, 또는 그 실천에 해당한다. 그 행위와 실천은 상황에 적합해야 하거니와, 시대상 또는 사회상이 크게 바뀌고 생활의 조건이 크게 달라지면 행복을 위한 행위와 실천도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시민생활을 강조할 때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대체로 전통 윤리의 규범들이다. 그 전통 윤리의 규범 가운데는 현대의 시민생활 조건에 맞지 않는 것도 흔히 있으며, 오늘의 상황에 맞지 않는 윤리의 규범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현대의 생활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바른 시민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전통적 윤리가 바른 시민생활을 위한 윤리의 전부일 수 없으며, 지키는 사람을 불리하게 만드는 윤리는 이미 참된 윤리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우리는 이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윤리가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할 것이며, 그 새로운 윤리는 현대인을 위한 바른 시민생활의 규범이 된다는 주장으로 맞설 수 있다는 뜻이다.

다. 문제는 어떻게 발전되는가?

그렇다면 바른 시민생활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대와 상황에 맞는 윤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 윤리는 이미 주어진 가치체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해 나가는 것임이 부각되게 된다. 즉 무엇이 바른 시민생활이고 무엇이 그릇된 시민생활인지의 문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인 우리들 각자가 삶의 문맥에서 서로 합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것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체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도가 어떤 합리적, 도덕적 근거 하에 있는 것인지를 반성하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의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통적 공동사회에서 서구의 이익사회에로의 이행과정, 즉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전통적 유교윤리와 서구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혼재해 있다. 이들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전통적 유교윤리가 지배하던 과거 우리의 전통 사회, 혹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 현대 서구 사회보다 우리가 더 극심한 가치관의 상실과 갈등을 경험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전통적 유교 윤리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서로 양립할 수 없거나, 혹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서로 역기능을 하는 방식으로 접합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가?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전통적 유교윤리로 되돌아갈 수도, 피부색을 바꾸어 철저한 서구의 자본주의적 인간이 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우리는 어차피 시간(과거-현재)과 지역성(동-서) 모두로부터 영향을 벗어날 수도, 어느 한 쪽으로 귀속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이러

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지혜롭게 내리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른 시민생활 활동」에서 합리성을 정의하는 서양적 사고와 동양적 사고의 차이에 대한 소집단 토론을 연구 프로그램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토론의 주제는 합리성뿐 아니라 가치관, 윤리 등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바른 시민생활의 문제는 작게는 시민의식의 올바른 정립으로부터 크게는 시대에 적합한 윤리체계의 구성, 더 나아가 서구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다차원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참여*

가. 들어가는 말 : 평가

가) ‘연구내용’에 대하여

개발진이 시민활동을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소극적 측면의 시민활동 조차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 자주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적극적인 시민활동 프로그램을 고안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과 지방자치 시대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발진이 계획한 정치적 참여(자치활동 및 선거참여)와 사회적 참여(지역사회봉사, 사회비판의식과 고발정신 고양)와 같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개발진은 적극적인 시민활동에 대해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참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바람직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측면의 책임의식을 넘어서 지율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적극적 시민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개발진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적극적 시민활동에 대한 교육과 생활화는 단지 우리 남한

*김병로(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사회 내의 자발적인 공동체 의식뿐만 아니라 21세기 탈냉전 시대,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민족통일 및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긴밀히 연결시키면서 시민교육과 훈련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개발진의 연구계획은 연구가 사문화되지 않고 현실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라고 생각된다.

나) ‘연구방법’에 대하여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를 비롯하여 연구진이 활용하고 있는 관련활동 프로그램 지도자 및 참가청소년과의 면접을 통한 의견수렴 방법은 청소년들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은 훈련대상자들과의 면접과 상담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과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개발진의 계획대로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의 현장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개발진의 연구계획은 연구내용이나 연구방법에 있어 타당하고 현실성이 있어 시민활동교육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고려해야 할 문제

청소년들의 적극적 시민활동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과서 공부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공동체 생활과 윤리도덕 실천, 정치사회교육 등 자주적인 시민활동 교육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교과서 이외에 한 권의 책도 읽을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청소년들의 생활교육 실정이다. 그렇다고 시민생활교육을 위해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대폭 바꾼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민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의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한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육제도가 빈번히 바뀜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기회주의

적 사고방식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교교육제도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유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생활공간이 학교로 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시민생활 교육과 적극적인 시민활동을 학교를 떠나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소년들에게 적극적 시민활동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우리의 교육실정을 고려한다면 프로그램의 내용과 훈련의 일차적 공간은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 교육과 활동내용은 학교교육의 일부로 흡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연구가 이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활동 교육을 위한 학교-사회간의 유기적 교육체계를 통해 시민교육을 생활화 해나가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생각하는 바를 적어본다.

나. 학교교육 프로그램

가) 정치적 참여

(가) 학교 정치활동 훈련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및 특별활동을 장려하되 자신들의 활동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견학 등을 실시한다. 또한 각종 회의와 선거를 스스로 주관하게 하며 회의와 선거시 공정한 절차를 밝아 진행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훈련시킨다(예, HR(홈룸)시간 활성화, 학습회의 진행, 반장 및 회장 선거시 활발한 토론과 입후보자의 의사개진 및 비밀투표).

(나) 모의 정치활동 프로그램

요즘 TV에서 시청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의국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급단위로 혹은 학교단위로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모의국회」의 방법으로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4-5개의 팀을 구성한다. 「모의국회」는 청소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익숙해 있고 자신들도 한번쯤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교육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예, 모의국회, 입후보자 모의 연설회, 공청회, 단체장 선거 참여).

(다) 국제화 세계화 의식함양

미국 등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의 유엔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문제의식을 심어준다. 청소년들이 각자 관심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그 국가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며, 국가간의 서로 다른 이익이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외교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 단위로 실시할 경우에는 학급에 한 나라를 할당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각 학교에 한 나라를 대표하도록 조정하여 5월 중순(중간시험)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각 국가 대표들은 자료수집과 향후에 대해 토론한다. 책임을 맡은 대표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자기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그리고 유엔에 상정할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책회의를 소집한다. 정기 유엔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9월 중순에 「모의 유엔총회」를 개최한다. 대표들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 자격으로 모의유엔회의에 참석한다.

(라) 국가이념과 통일문제에 대한 준비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며 21세기 탈냉전 시대의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 추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데는 귀순자 강연과 북한영화 관람이 효과적이다. 귀순자 강연은 청소년들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젊은 층의 귀순자들이 좋으며, 특히 최근 동유럽 유학생 신분으로 귀순한 사람들이 적합하다.

북한영화 관람은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매우

효과적이다. 영화관람은 학생들에게도 큰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학교측에도 경제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통일원 북한자료센타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인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 그룹이나 학생회 간부들과 같은 소그룹은 이 곳을 이용할 수 있다. 통일원 북한자료센타에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2시에 북한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나) 사회적 참여

(가) 자치활동과 CA(Creative Activity,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

자치활동과 특별활동 내용을 내신성적에 반영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유명무실한 특별활동이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특별활동시간에 연수나 견학을 실시하거나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교내행사(전시회, 음악회, 연극제, 방송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사회활동에 대한 평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본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에 대한 평가 및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욕과 자부심을 심어준다(예, 경험해 본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서 작성).

(나) 사회비판의식 조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토론과 건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비판의식을 조성한다. 청소년들의 사회비판의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지 않도록 대안 없는 비판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예, 사회부조리에 대한 상황극, 최근 발생한 사회적 사건 및 청소년들의 해결대안 토론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방법 제안).

(다) 시민의식함양

첫째, 학부모들의 모임을 건전하게 활성화시킴으로써 학교와 부모들이 동시에 책임을 지는 가정-학교 연계교육이 필요하다. 매 학기마다 방학 직전에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임을 갖고 학생들과 문제점을 토론하는 교육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같은 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교육을 받게 되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 둘째,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우선 초·중등학교에서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도덕적 갈등사태에 대한 합리적 논의와 분석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도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졸업생을 초청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간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한다(예, 윤리문제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전통윤리 강연회, 사회적 갈등에 관한 조명과 해결을 위한 각종 연극, 역할극(Role Play), 작문대회, 졸업생 초청 토론회,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회). 셋째, 성문제 및 남녀차별 관련하여 이해시킴으로써 건전한 성윤리를 교육시킨다(예, 남녀문제에 대한 남녀 청소년들의 주장을 듣는 토론회, 이성교제와 성교육에 관한 영화상영). 넷째, 바자회 개최. 학생들이 자신들에게는 크게 필요하지 않으나 다른 동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모아 바자회를 개최함으로써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회성을 교육시킨다.

(라) 기타

교내 종교씨클간 교류 및 종교/비종교 그룹간의 교류와 토론을 활발히 하여 배타적 가치관 형성을 지양하고 공동체 시민의식을 교육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환경보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예, 재활용 교육,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부착, 재활용품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견학).

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시민활동을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다. 학교교육은 사회교육과 연계 속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사회교육의 뒷받침이 없는 학교교육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사회정치적 참여를 학교 이외의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가) 정치적 참여

(가) 가족회의 진행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활동 훈련으로는 가족회의 진행을 둘 수 있다.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반사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충돌을 일으키기 쉽고 가족간의 갈등이 야기되기 쉬우므로 메로를 해두었다가 가족회의를 통해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습관을 기른다. 부모들의 건의에 자녀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을 때는 칭찬과 선물로 격려하면 좋다.

(나) 통신과 방송매체를 통한 참여

청소년들에게도 성인들의 정치참여로 좋은 방법이 되고 있는 전화회의 방법과 최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통신을 이용한 정치참여 방법을 교육시킬 수 있다. 관계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시 군의회 의원들의 전화전호를 미리 알아두고 정책건의를 하거나 컴퓨터통신 천리안이나 하이텔 등을 이용한 정치적 건의를 할 수 있다. 또는 방송국들의 청소년대상 「공개방송」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 훈련시킨다. 청소년들은 학교공부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고 있고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동원한 청소년 사회교육은 중요하며 매우 필요하다.

나) 사회적 참여

(가) 자치단체와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학교내의 서클과 특별활동반을 중심으로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예, 산악반, 미술반 등의 취미활동, 식목일, 현충일, 제헌절, 한글날 등 공휴일에 관련행사 참석, 외국어 회화반 해외연수,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YMCA 등 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나) 지역사회봉사

지역사회봉사를 통해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한다. 방법으로는 농촌봉사활동, 학예회, 예술제에서 준비한 행사내용을 노인대학이나 고아원 등에서 제공연, 장애인 후원단체 및 선명회 등에 가족단위로 가입,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

와주기, 헌혈 및 장기기증 서약 등이 있다.

(다) 환경운동 참여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학교생활 이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언론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카웃」, 「샛강을 살립니다」 등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거리청소 활동을 전개한다.

(라) 종교활동 참여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심어준다. 입시와 성적에 얽매어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세계관, 내세관을 제시함으로써 희망을 불어 넣어준다.

(마) 질서운동과 극기훈련

질서운동과 극기훈련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생활을 훈련한다(예, 운동경기시 경기장 출입과 응원 등에서 질서지키기, 극기훈련을 통한 인내심 교육).

(바) 사회비판의식과 고발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사회활동

참여방법	활동내용
개별적 및 개방적	설문조사 참여, 불량식품 고발, 항의엽서 및 전화, 대중매체에 투고, 민원실 이용, 여론함 이용, 투표
집합적 및 개방적	반사회, 간담회, 지역좌담회, 시민집회, 이익집단, 집단행동, 공청회
개별적 및 제한적	견문보고, 여론모니터, 민정시찰, 델파이조사,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훈련, '경실련'에 관한 강의
집합적 및 제한적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 참여, 주민대표회의, 위원회

라. 프로그램 운영방안

시민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주기 등을 고려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지역적 특성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은 평일과 주말에는 생활형태가 크게 다

로지 않지만 농촌지역 청소년들은 가사일을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특히 방학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소 지루한 감을 줄만큼 가족과의 여행이나 다른 사회활동이 부재한 형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한 시민활동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자치활동 그룹과 학교외 사회활동 단체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공단지역 근로청소년들은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일반상식 및 시민생활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책상과 소파 등을 구비하고 간단한 음료수와 차를 준비하여 만남과 토론의 장으로 이용하거나 야간학교를 개설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근로시간(근로청소년의 경우) 이외에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코미디나 오락 프로그램에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질 높은 방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예,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는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나) 생활주기의 특성

청소년들의 생활주기상 특성을 살려 평일과 주말, 방학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평일에 학생들은 TV시청 이외에는 특별한 활동을 할만한 시간이 없다. 따라서 평일에는 대중매체와의 유기적 관계속에서 시민활동을 교육할 수 있는 대중매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한편 주말에는 영화, 운동 등 3-4시간이 소요되는 사회 참여활동을 마련한다. 방학 때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 사회제도 개선

청소년들의 시민활동 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들은 사회제도로 뒷받침될 때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영화관, 오락실 등을 공영화, 개방화함으로써 청소년

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단체들의 청소년 선도활동 및 각종 소비자단체에 의한 소비생활의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밖에도, 대중매체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활성화이다. 시민고충처리인, 시민보호자, 시민대리인, 민원감찰관, 호민관 등으로 불리는 옴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접촉을 통하여 시민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바, 시민은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민근접행정의 도구로서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발되었고 현재는 핀란드(1919), 노르웨이(1952), 덴마크(1953), 독일(1956), 뉴질랜드(1962), 캐나다(1962), 미국(1967), 프랑스(1973)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현재 세계 7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참여제도로서 그 도입이 요망되어 왔다(이승중, 1993 : 218).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국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것이 중앙단위 뿐만 아니라 지방단위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지 않았다가 일차적으로 지방단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옴부즈만 제도는 특히 지방정부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3. 기존 유사활동 현황조사

1) 청소년단체의 관련활동

1994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발행한 안내책자에 수록된 34개의 회원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바론 시민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현황조사

를 실시한 결과, 시민활동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활동의 범위를 넓게 이해하여 봉사활동, 환경보호 등도 포함하여 조사한다면 관련활동을 실시하는 단체가 다수 있을 것이나, 본 조사에서는 시민활동의 범위를 엄밀하게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며, 또한 전화조사라는 방법상의 한계에 의해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바른 시민이라든지 시민정신의 함양은 대부분 (학교)교육에 치우친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참여하는 시민활동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2) 1994년 한국청소년개발원 수련광장

주 제 : 함께 하는 삶

기간 및 장소 : 1994년 8월 8일 부터 8월 13일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 덕평 수련원)

인 원 : 진행요원 13명, 수련참가자 120명 (남녀 고등학생 각 60명)

내 용 : 5박6일의 전 과정에서 4일에 걸쳐 60분에서 90분의 단위 활동이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언어전달 게임”, “그림 맞추기 게임”, “사회 속의 우리” 그리고 “시민과 사회참여”의 4과정으로 되어 있다.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질함양을 바탕으로 사회의 구성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주인으로써의 참여의식까지 일깨울 수 있는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이었다.

청소련 수련광장 활동 일정표

시 간	8일(월)	9일(화)	10일(수)	11일(목)	12일(금)	13일(토)	
06:30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상, 청소, 아침운동)					
07:30		아 침 식 사					
08:30		선택 활동 1 1. 시민생활활동 2. 정신건강활동				정리의 시간	
10:00		선택 활동 2 1. 사 물 놀 이 2. 탈 통 춤 3. 전 통 공 예 4. 전 통 무 예				다짐과 나눔의 시간	
11:00						담합의 시간	
12:00		점 심 식 사					
13:00		등록	푸른 숲에서 -등 산 -환경시쓰기 -자연관찰	푸른 하늘에서 -패러글라이딩 실습	도 예 교 실 1. 도예미술관 관람 2. 도예실습 -특강 -도자기 만들기	환경파수꾼2 (환경교실) 1. 지역환경 실태조사 2. 발표 및 토의	집을 향하여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출발	물과 친해지기	휴 식				
20:00	도착 및 정리	수 영	저 녁 식 사				
21:00	열림의 시간	-물놀이					
22:00	한마음 다지기 (조별모임)						
23:00							
06:30	노래와 함께	노래와 함께	노래와 함께	이웃을 위하여2	준비시간		
07:30	하나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1 -장애체험활동	환경파수꾼1 (환경교실) -환경올림픽 -환경특강	-장애우와 함께 하려면	젊음의 한마당		
08:30	-소개 시간 -공동체 놀이	가치탐색활동1 “나는 누구인가”		가치탐색활동2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09:30	휴 식				1부:청소년 가요제 2부:장기자랑 3부:“타오르는 불과 함께 하나로” -Campfire		
10:30	하루를 정리하면서						
11:30	취 침						

Ⅲ. 바른 시민생활활동 내용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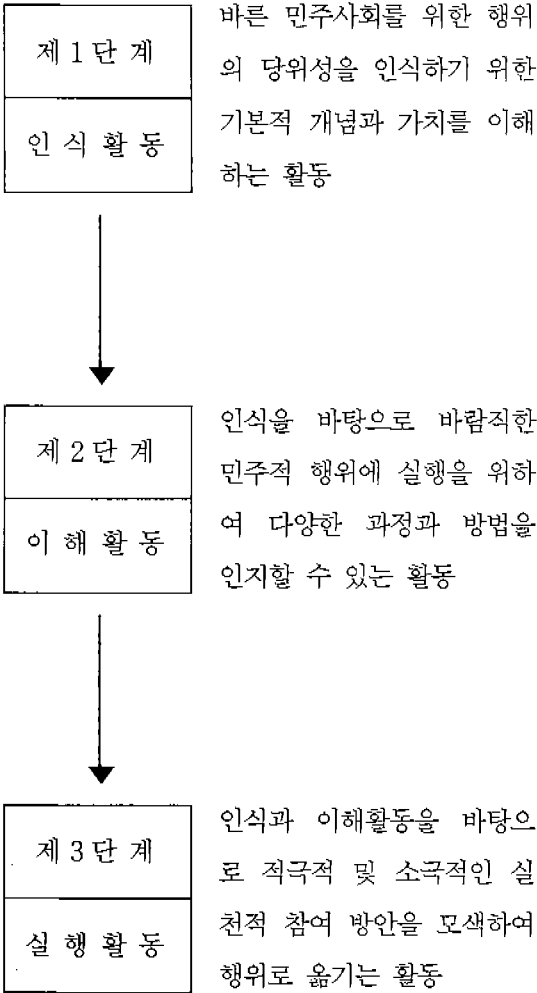
세계화 또는 국제화라고 표현되는 변화가 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리와 같은 시민생활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힘들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참여를 통해 체득하여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앞의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록 먼저 바른 시민의 자질과 바른 시민생활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는 시민생활의 두 가지 측면인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나누어 이해와 실행의 두 단계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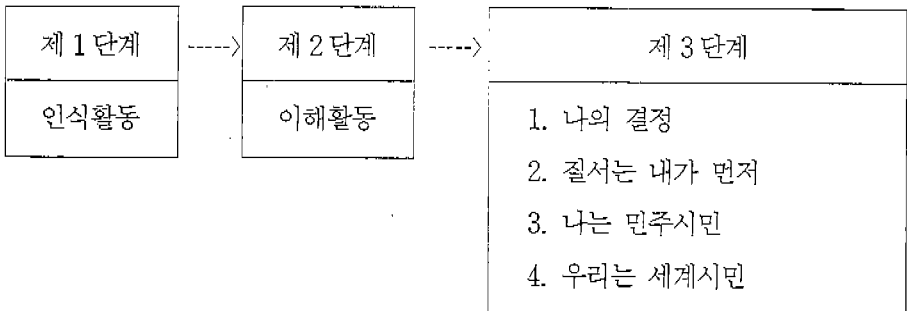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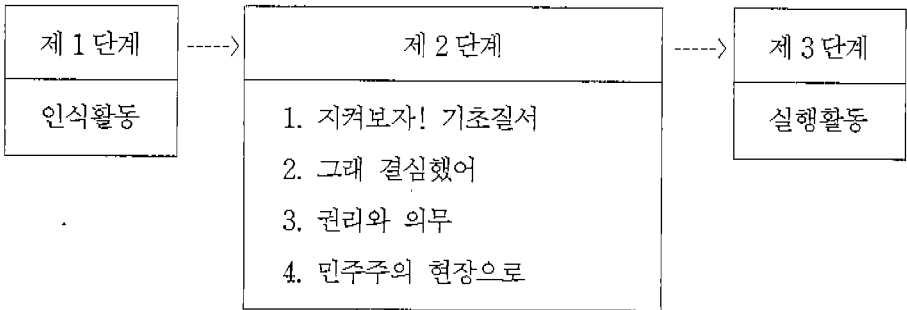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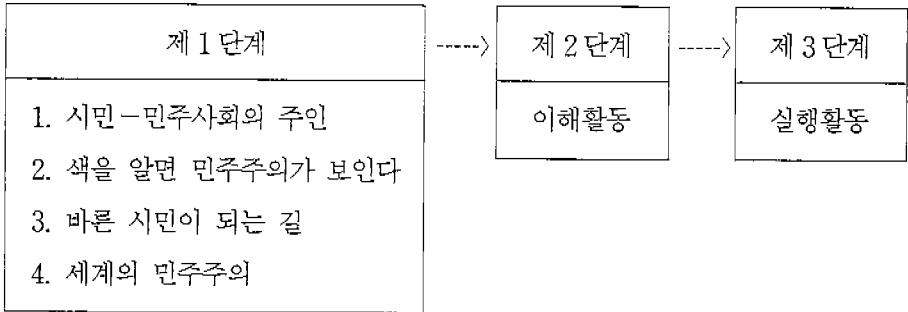
바른 시민생활활동은 처음의 수련거리 개발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활동범주는 다소 다르다. 처음의 시민과 바른 생활을 인식하는 과정은 동일하나 소극, 적극적인 참여는 이해와 실행활동에서 각 단위 프로그램으로 표현되게 된다. 수련거리의 내용은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또한 1994년 9월 29일에 개발원 회의실에서 중간보고서 발표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마지막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1. 프로그램 구성도

바른시민생활활동
내 용 조 직 표



각 단계별
활동전개



2. 인식활동

이 장은 각 세부적인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인식의 과정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바른 시민활동의 실천적인 당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바른 시민 활동은 개념자체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차용하는 분야를 확실히 한계 지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개념(자유민주주의, 민주시민생활), 시민성(통합성, 다양성), 그리고 바른 시민가치(공동체 의식, 수평적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 시민 - 민주시민의 주인

바른 시민의 생활은 곧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 근간이 될 수 있다. 아무래도 시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활동은 다른 활동과는 달리 강의와 토론을 통해 많은 부분이 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 활동에서는 시민에 대한 정의를 배울 때 수강태도와 토론방식에서 바른 시민성향을 느끼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강의 수용과정과 각자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을 수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적 시민태도를 함양하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느낀 점을 정리하여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한다.

2) 색을 알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불란서 대혁명때 표방된 자유, 평등, 박애의 세 원칙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다수의 민주국가들이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이념을 민주사회의 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기본이념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생활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초를 배양하는 것이 바른 시민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강의 수용과정과 각자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을 수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적 시민태도를 함양하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느낀 점을 정리하여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한다.

3) 바른 시민이 되는 길

바른 민주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천이다.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민주주의 개념의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몸매 실천을 위한 바람직한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될 것이다. 청소년이 어리고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다고 소극적인 시민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에서는 적극적인 측면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비디오를 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사회유지를 위한 민주질서 준수와 나라마다 다른 정치제도를 인식해본다.

4) 세계의 민주주의

현대는 세계화와 국제화의 사회이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서도 살 수 없다.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른 민주시민의 자세인 것처럼 세계를 한 국가와 같이 생각하여 세계인으로써의 바른 시민생활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킴으로써 적극적인 국제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화의 정도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세계지도를 그려보고 국제적인 인권문제(세계적 상황과 남북문제)와 민주질서유지에 대하여 토론한다.

3. 이해활동

이해활동은 실행활동과 더불어 민주시민으로써의 소극적 및 적극적 측면을 모두 담고 있다. 소극적 측면의 시민활동은 자율에 바탕을 둔 민주 시민활동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갖고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부연하자면,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초질서 확립을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까지 지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 줄거리를 꾸민다. 각 고려된 요소는 인간존중(비차별-빈부, 성, 장애인, 개성존중, 인명존중), 책임과 의무,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개방성, 자율성 및 준법성(질서의식, 약속) 등이다.

한편, 적극적인 시민활동은 자주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한다. 소극적인 시민활동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남과 더불어 살기 위한 의무나 책임을 강조한 반면에 적극적인 활동은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강조가 되는 내용은 정치적 참여(자치활동 참여, 선거참여)와 사회적 참여(지역사회봉사, 사회비판의식과 고발정신 고양)이다.

1) 지켜보자! 기초질서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여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의존하고 협동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생활의 기초로써 질서를 지키는 법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빙고게임, 3인4각 게임, 오리엔티어링 등을 통해서 어떤 것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어떤 것이 어기는 것인가를 알고, 올바른 기초질서 지키기를 이해한다.

2) 그래 결심했어

시민생활의 소극적 측면의 하나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들 수 있다. 또 경제생활 중에서도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생각할 때 시민으로써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국산품을 사용하려는 행동의 변화는 국산품을 썼을 경우와 수입품을 썼을 경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수입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국산품을 썼을 경우와 수입품을 썼을 경우에 대한 상황극을 전개해 봄으로써 국산품을 왜 써야만 하는지 이해한다.

3) 권리와 의무

태어나자마자 한 국가의 국민이 된 개인을 위하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천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나

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자신의 권리는 반드시 확보하고 행사하여야만 사회 정의가 확립되고 공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또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행사 방법을 이해한다.

4) 민주주의 현장으로

국회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국회에서 하는 일을 전학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이해한다.

4. 실행활동

1) 나의 결정

민주 사회는 시민 자신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키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바른 시민이 되려면 장래에 그들이 당면할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그러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는 사적인 문제도 있고 공적인 문제도 있다. 시민으로서의 결정의 문제는 공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구별하고, 공적인 문제를 분석해 보며, 합리적인 결정을 해 본다. 따라서 게임을 통해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 사실주장과 의견을 구분해 보고, 가치갈등상황의 당사자가 되는 역할 극을 통해 공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보도록 한다.

2) 질서는 내가 먼저

인간 사회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 나가려면 모든 사람이 꼭 지켜야 하는 행위규범이 필요하다. 질서 유지를 위해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규범은 법으로서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일 뿐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의 운영규범이며,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규칙에 따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초질서에 관한 법규정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규칙을 만들어 본 후,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제재의 방안을 강구해 본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초질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소년 활동집단의 내부규칙을 만들어 본 후에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서 모의 즉결심판을 구상해 실연해 보도록 한다.

3) 나는 민주시민

바른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하거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거, 회의, 시민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체험해 봄으로써 바른 시민생활을 실행해 본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청소년활동 대표자를 뽑아 보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회의를 진행해 보며, 회의를 통해 결정된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보도록 한다.

4) 우리는 세계시민

현대 사회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놓았고, 미래에는 세계가 하나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먼저 모든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러나 우리 나라는 국내에서조차 지역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남북이 갈라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질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갈등 해소방안을 찾아보고, 통일을 대비하며,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살펴본다. 우리 나라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게임을 통해 알아보고, 남북간의 언어의 차이를 퀴즈를 통해 알아보며, 외국의 시민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간 국가간의 벽을 허물고 세계시민의 자질을 쌓도록 한다.

IV. 요약 및 제언

바른 시민생활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식을 강조하여 더불어 사는 생활태도를 길러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근간이 되는 것은 협동과 타인 존중을 강조하는 측면인데 이것은 우리 나라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과도 상응하기 때문에 서구 민주주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질적이거나 갈등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편 서구 민주주의는 또 다른 측면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나 정치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시민자세가 민주 시민사회의 안정과 협동을 파괴하는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바른 시민생활자세를 갖기 위하여 권장되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이러한 측면 모두를 인식시켜주는 것이 본 프로그램집을 개발하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소극적인 바람직한 생활양식과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수련거리 내용을 구성하였다.

바른 시민생활이라는 것은 매 순간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치판단을 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은 가치관 관련활동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본 프로그램은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취해지는 것과 같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써 민주적 시민 자세를 내면화하여 매사에 가치판단의 과정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꾸며져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련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주체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조자의 역할 수준에서 모든 활동이 실행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민주생활의 추상적인 개념의 주입이 아니라 재미있는 활동참여를 통한 체험적인 이해가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도자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본 개발진이 개발하고자 하는 바른 시민생활활동은 세단계로 되어있는데 내용은 청소년의 시민생활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지도자가 융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는다. 더욱이, 참고는 지도자들에게는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청소년에게는 수련활동 전후로 하여 시민에 대한 참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